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구 정 화*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결과 및 해석
- V. 결론

I. 문제제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인간발달의 과도기이며, 다양한 발달과업으로 인해 독특한 문제와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의 가치체계나 행동방식을 평가하고 주변의 인물들을 의식하면서 자기나름의 모습을 형성해 가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서 하나의 사회적인 관계 내에 존재하는 유기체로 인식하여 타인과 비교하고,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을 판단한다. 또한 청소년기

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게 되어 다양한 사회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평가하고, 또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박영남 외, 1993 : 5-6). 이렇게 자신의 각 영역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외부의 타인에게서 받을 지지나 인정, 기대를 평가하는 것을 ‘자기평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평가의 대상인 ‘자아’는 보통 세가지 모습이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현재 모습인 ‘실제적인 자아’이고, 둘째는 자신이 되고자 지향하는 ‘이상적인 자아’이다. 마지막은 다른 사람 앞에 보여지는 자아로서 ‘공적인 자아’이다(Youngs, 1994 : 141-142). 두번째의 이상적인 자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준거자아일 뿐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아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제적인 자아와 대중에게 드러나는 공적인 자아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는 자기평가는 자아 정체감이나 자아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는 경

우도 있고 또는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의미 구별이 어렵다. 보통 자아정체감은 주체성, 자기의 존재 증명 등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에 대해 Erikson(1968)은 개인적 자아정체감과 사회심리적 자아정체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개인적 정체감은 시간의 경과속에서 유지되는 자아의 동질성과 속성을 의미하며, 사회심리적 자아정체감은 자기와 관련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일치성으로서 예를 들면 자기민족의 고유한 역사에 의해 이룩된 가치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아정체감은 그 대상인 자아에 대해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자기탐색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신의 능력, 위치, 역할에 대한 지각과 개념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아개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지각, 관념 및 태도의 독특한 체제이다. Rogers(1981)는 자아개념을 개인의 자신에 대한 지각이며, 이러한 지각에 부합하는 가치와 함께 자신이 환경 속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하나의 조직된 상이라고 설명한다. Purkey(1971)에 따르면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갖는 신념과 태도 및 견해 등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체계로서 각각의 신념은 그에 대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이나 자아개념은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모습이 많이 반영될뿐 타인이 자신을 평가하는 공적인 자아에 대한 모습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하지 못한 면이 있다. 자기평가는 자신을 객관적인 존재로 파악하여 자신을 바라보는 점에서 자아정체감 및 자아개념과 비슷하다. 그러나 자기평가는 자신을 객관화시켜 단순히 자신을 하나의 상(이미지)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는 면에서 좀 더 객관적이다. 이

러한 자기평가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의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평가하는가와 관련된 '사회적인 자기평가'로 나눌 수 있다. 즉, 자아개념이나 자아정체감과 같은 맥락에서 자신이 갖는 능력이나 태도, 가치 등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I)'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영역과, Mead(1934)와 Cooley(1964)등이 논의하는 타인에 투영된 자아를 살펴 보기 위해 청소년기의 중요한 타인들인 부모, 또래친구 등이 '나(me)'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를 예측해 보는 사회적인 자기평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개인이 자신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갖느냐 아니면 소극적, 부정적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 자아감과 자아이미지가 달라지며(최순남, 1994:138),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이루어질 때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가꾸어가는 데 필요한 현실적 적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자아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주변의 인물들에 드러난 대상으로서 자신을 평가하는 사회적인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자기평가 영역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환경 변인에 따라 자기평가의 트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통해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 1) 청소년의 자기평가 각 하위영역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 2)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대한 성별 차이가 있는가?

- 3)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대한 학교변인인 교급별, 학교제열별, 학교성적별 차이가 있는가?
- 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대한 가정변인인 형제순서별, 경제수준별, 가족간 대화정도별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의 주관적인 자기평가

Rosenberg(1989)가 자기평가를 심리적 복지의 중요한 지표로서 설명하는 것처럼, 청소년들이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적인 적응과 발달과업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한 중요한 변인이다. 즉, 자아정체를 탐색하고 자아상을 정립해 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있어, 자기평가는 청소년의 주관적인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사고, 감정, 행동 등 모든 영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직접 평가하는 주관적인 자기평가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김종서 등(1983)은 발달단계에 따라 수행·경험해야 할 발달과업을 4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는데,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 그리고 신체적 영역이 그것이다. Harter(1990)는 자기존중감을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해 부여하는 총체적인 가치’라고 설명하면서, 그 하위영역으로 학업영역, 사회영역, 운동능력, 품행 및 외모 등의 세부적인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이¹⁾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하여 ‘자아’와 관련된 여러 영역을 제시하고 있지만 김종서 등이

Harter의 세부영역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평가하는 모습과 청소년 주변의 주요인물에 대한 평가예측에 대한 다양한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려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는 영역을 ‘학업영역’, ‘사회영역’, ‘가치영역’, ‘신체영역’의 네 가지로 구별하고자 한다. 학업영역은 학교에서 성취와 관련된 것으로 학업성적, 지적 능력 등과 관련된 평가로서 본 연구의 대상이 학생청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지적영역보다 좀 더 현실적인 학업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영역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적응능력으로서 사회성과 비슷한 요소이다. 가치영역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서 자존감에 기초가 되는 것이며, 신체영역은 자신의 외모, 체격, 신체에 대한 만족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각 영역은 서로간에 상보적인 효과를 지니면서 청소년기의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중요한 대상이 되며, 각 영역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청소년기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영남 외, 1993).

이러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생물학적으로 남·여의 2차 성장이 나타나고, 사회학적으로도 성역할에 대한 차이가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임을 감안할 때 자기평가에 성별차이가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생활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와 가정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대상으로

1) Fitts는 내적자아와 외적자아를 구분하여, 외적자아의 요소로서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사회적 자아를 제시하며, 정원식은 신체적 자아, 도덕적 자아, 성격적 자아, 가정적 자아 및 사회적 자아를 들고 있다.

서 자아는 학교와 가정생활과 관련된 자아이다. 즉,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경험이나 학교에 대한 태도, 친구관계, 학업성적, 가족에서의 위치, 가정 생활 등과 관련하여 자신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있어 학교와 가정의 경험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청소년기의 사회적 자기평가

청소년 자신에 의한 주관적인 자기평가 외에도 청소년들은 타인에 의한 자신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러한 타인의 평가를 Mead(1934)는 '일반화된 타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Cooley(1964)는 '거울자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Cooley에 의하면 개인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통합하여 '자신에 대한 느낌'을 가지며, 이렇게 타인에 의해 반영되는 자기평가는 자기를 이해하는 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평가의 중요한 영역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타인은 주로 청소년의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족(특히 부모), 또래 집단, 그리고 교사이며, 중요한 타인인 부모나 또래, 교사 등의 평가 및 지지가 청소년기의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서 보고된 바 있다(Bachman, 1982 ; Kurdek & Sinclair, 1988 ; Rosenberg, 1989 ; Ohannessian, 1992을 이명숙, 1994 : 19에서 재인용).

사회적인 평가 및 지지는 복합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있다. Cobb(1976)은 정보로서의 사회적 지지를 정의하면서 돌봄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 존경을 받고 있다고 믿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존경 지지', 대화를

통해 상호간에 소속감을 느끼는 관계망(network)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게 해주는 정보인 '관계망 지지'를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Kaplan, Cassel, and Gore(1977)는 애정, 인정, 소속 및 안정에 대한 개인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사회적 지지로 보았으며, Kahn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타인에 대한 애정, 타인의 언행에 대한 긍정, 타인에 대한 상징적이거나 물질적인 도움 등을 지지적인 작용으로 보았다(양인숙, 1991 : 8에서 재인용).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행하는 대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인으로서 가족, 또래, 교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청소년의 사회적 자기평가를 부모평가, 형제평가, 또래평가, 교사평가의 4가지 주요영역으로 나누어 이러한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인정 및 지지를 예측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들(Lloyd, 1985 ; Brown, Ericher, and Pertrie, 1986 ; Ginsberg, Gottmann and Parker, 1986 ; Parker and Asher, 1987 ; 윤진, 1984 ; 백정임·성동인, 1993 ; 이명숙, 1994)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로 또래집단의 평가를 들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모, 형제, 교사평가 또한 또래집단의 평가와 함께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런 청소년의 사회적인 자기평가 또한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가정 및 학교 환경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의 성역할 형성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주변인물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의 정도가 다를 것이며, 또한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평가자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인물임을 고려할 때, 주관적인 사회평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자기평가에서도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의 경험은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 그리고 중학교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800명을 표집하였으며, 설문은 1994년 7월 중에 실시

하였다. 설문과정에서 회수되지 않은 것과 회수된 것 중에서 내용이 불충분하여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사례는 717개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집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46.6%이며 여학생은 53.4%로 여학생이 조금 많다. 처음 표집시 남, 여 비율이 50대 50이었으나 유효응답사례만 분석함으로써 여학생의 비율이 더 많아졌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은 49.4%이며, 고등학생이 50.6%로 이 중 실업계 고등학교는 여학생 49명, 남학생 43명으로 전체 고등학생 362명 중 25.4%이다.

경제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인 수

〈표 1〉 표집의 특징

변	인	사례수	빈도 (%)
성	남	333	46.6
	여	384	53.4
별 학	전체	717	100.0
	고등학교	362	50.6
	중학교	354	49.4
교	전체	716	100.0
	상	128	17.9
지	중	539	75.3
	하	49	6.8
준	전체	716	100.0
	상	159	22.4
적	중	372	52.4
	하	179	25.2
준	전체	710	100.0
	만이	278	38.8
제	막내	290	40.5
	중간	113	15.8
순	독자	35	4.9
	전체	716	100.0

* 각 변인에 있어 무응답을 제외하여 전체가 717명보다 작은 경우가 있음

입이나 직업에 대하여 응답 청소년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얻기어려워 청소년 스스로 가정의 경제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당신의 집은 경제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잘사는 편이다’를 ‘상’으로, ‘그저그렇다’를 ‘중’으로, ‘잘 못사는 편이다’를 ‘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상’인 경우는 17.9%, ‘중’인 경우는 75.3%, ‘하’인 경우는 6.8%였다. 형제 순위는 ‘말이’가 38.8%, ‘막내’가 40.5%, ‘중간’인 경우는 15.8%, ‘독자’인 경우는 4.9%로 나타났다. 성별별로는 “당신의 학교에서의 성적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잘하는 편이다’를 ‘상’, ‘보통이다’를 ‘중’, ‘잘못 하는 편이다’를 ‘하’라고 하여 분석한 결과 ‘상’은 22.4%, ‘중’은 52.4%, ‘하’는 25.2%였다.

이런 성별(남,여), 교급(고등학교, 중학교), 학교계열(인문계, 실업계), 성적수준(상, 중, 하), 형제순서(말이, 막내, 중간, 독자), 경제수준(상, 중, 하)은 본 연구의 집단간 비교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²⁾의 구성

청소년의 자기평가를 크게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라는 두 범주로 나누었다. 주관적인 자기평가는 다시 「학업영역, 사회영역, 가치영역, 신체(외모)영역」의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 영역에 4문항씩으로 전체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인 자기평가 또한 「부모, 형제, 또래, 교사」의 4영역으로 나누어 각 4문항씩 16문항으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자기평가도구는 32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설문

지이다.

각 문항의 점수는 Likert척도 제작법에 기초하여 “매우그렇다—그렇다—그저그렇다—그렇지않다—매우그렇지 않다”의 5단계 평점척도로 제시되었다. 문항 당 ‘매우그렇다’에 최고 5점을, ‘매우 그렇지않다’에 최저 1점을 부여하여 4문항으로 이루어진 각 하위영역의 총점은 최고 20점에서 최저 4점이며, 중간점수는 12점이다.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점수는 4개 하위영역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또한 최고 20점에서 최저 4점이며, 중간점수는 12점이다.

자기평가의 하위영역으로 설정된 8개의 변인 중 ‘학업영역’은 학업성취와 관련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며, ‘사회영역’은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적응력, 친밀감 등에 대한 평가이고, ‘가치영역’은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평가이며, 이에 비해 ‘신체영역’은 자신의 외모, 체격 등에서 느껴지는 평가를 말한다. ‘부모, 형제, 또래, 교사평가’는 그 대상이 자신에 대한 인정, 지지 및 기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추측하여 본인이 평정하게 하는 간접적인 평가이다. 각 영역별 문항의 예를 보면 <표2>와 같다.

이러한 자기평가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의 신뢰도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32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8840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에서 학업영역의 신뢰도는 .6812이며, 사회영역은 .6089, 가치영역은 .6298, 신체영역은 .7422이다.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에서 부모평가의 신뢰도는 .7349이며, 형제평가는 .6528, 또래평가는 .7134, 교사평가는 .6307이다.

2) 설문지는 요구에 의해 배부될 수 있음

〈표 2〉 자기평가 하위영역별 문항의 예

영역	역	문항의 예
주관적인 자기평가	학업영역	나는 누구보다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영역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든다.
	가치영역	나는 다른 사람들 만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신체영역	나는 호감을 주는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인 자기평가	부모평가	나는 부모님이 나를 믿는다고 생각한다.
	형제평가	나는 형제들이 내게 많은 기대를 한다고 생각한다.
	또래평가	나는 친구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교사평가	나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PC⁺ (ver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관련하여 각 하위평가영역간의 상관관계와 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자기평가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분석방법은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과 F-검증이며, F-검증을 이용한 통계표는 변량분석표를 제시하지 않고 각 집단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및 사례수를 제시한 후 F값과 유의수준을 제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IV. 결과 및 해석

1. 자기평가 하위영역 간의 상관

청소년의 자기평가를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로 나누어 살펴본 자기평가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주관적인 자기평가영역 내의 상관을 보면 모두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 $p < .01$ 수준에서 유의

〈표 3〉 자기평가 하위영역 간의 상관관계

	학업	사회	가치	신체	부모	형제	또래
사회	.3188***						
가치	.5406***	.4344***					
신체	.3905***	.2862***	.5444***				
부모	.3183***	.2672***	.4790***	.3500***			
형제	.2067***	.1836**	.3879***	.3436***	.5146***		
또래	.3813***	.5746***	.5243***	.5509***	.2894***	.3370***	
교사	.3067***	.2712***	.3403***	.2847***	.1881***	.1850***	.3614***

(n=600)³⁾

** : $p < .01$ *** : $p < .001$

3) '독자'의 경우 형제평가가 없으므로 제외되었고, 무응답자 또한 분석에서 제외하여 600명으로됨

미하다. 개별적인 상관정도를 보면 ‘신체영역과 가치영역’간의 상관은 .5444, ‘학업영역과 가치영역’간의 상관은 .5406이며, ‘사회영역과 가치영역’간의 상관은 .4344로서 가치영역이 다른 영역과 갖는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갖는 학업능력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및 적응이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평가인 가치영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인 자기평가영역 내의 상관은 가족관계인 ‘부모평가와 형제평가’간에 .5146의 상관을 보이고,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인 ‘교사평가와 또래평가’간의 상관이 .3614로서 사회적인 자기평가 내의 다른 어떤 평가영역 간의 상관보다 높다.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 간의 상관을 보면 가치영역의 경우는 또래평가와 .5243, 부모평가와 .4790, 형제평가와 .3879, 교사평가와 .3403의 상관을 보여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에서 사회적인 자기평가와 가장 관련이 큰 영역이 가치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볼때 청소년들이 느끼는 중요한 타인으로서 가족, 친구, 교사의 평가가 높을 때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 또한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영역은 또래평가와 .3813의 상관을 보이며, 사회영역과 또래평가 간에는 .5746의 높은 상관을, 또래평가와 신체영역은 .5509의 상관을 보인다. 이와같이 청소년의 모든 주관적인 자기평가영역이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 또래평가와 상관이 높은 것을 볼 때, 사회적 자기평가영역 중 또래평가가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 자기평가의 중요한 타인으로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의 또래평가가 우정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불완전한 자아 개념을 강화시켜주는 자아고양의 기능을 한다는 주장(윤진, 1984)을 지지한다. 즉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이 자신을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자신에 대한 지지기반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각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존재가치가 고양됨을 알 수 있다.

2. 자기평가에 대한 성별 차이

청소년의 자기평가를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그 하위영역별로 성별에 따라 F-검증을 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대해 남학생의 평균은 13.53, 여학생의 평균은 13.07로서 남학생의 평가가 더 높으며 이런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각 하위영역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한다. 특히 자신의 외모와 신체에 대한 평가인 신체영역에 대한 남학생의 평균은 12.59이며, 여학생의 평균은 11.25로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며($F=33.17$, $p < .001$), 학업영역에서도 남학생의 평균은 12.96, 여학생의 평균은 12.4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업능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주관적인 자기평가 내의 하위영역간에 차이를 보면 남, 여학생 모두 사회영역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신체영역에 대해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다. 특히 여학생은 신체영역에 대한 평가의 경우, 중간점인 12.00에 못미치는 11.25의 평균을 보여 외모나, 체격 등의 신체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중요한 사회적 타인에 의한 평가를 예측하도록

〈표 4〉 ‘자기평가’에 대한 성별 차이

성 별	남	여	
자기평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통계치
주관적 자기평가	13.53(2.28)	13.07(1.99)	F=7.50 **
학업영역	12.96(3.08)	12.43(2.87)	F=5.45 *
사회영역	14.49(2.93)	14.31(2.58)	F= .80
가치영역	14.14(2.86)	14.05(2.71)	F= .20
신체영역	12.59(3.29)	11.25(2.87)	F=33.17 ***
사회적 자기평가	13.72(2.02)	13.55(1.85)	F=1.16
부모평가	15.75(3.16)	15.86(2.98)	F= .24
형제평가	14.17(3.05)	14.08(2.76)	F= .15
또래평가	12.55(2.75)	12.58(2.42)	F= .01
교사평가	12.27(2.71)	11.50(2.57)	F=14.83 ***

N=(남 : 331,여 : 379)

* : $p < .05$ ** : $P < .01$ *** : $P < .001$

한 사회적 자기평가에 대해 남학생의 평균은 13.72, 여학생의 평균은 13.55로서 남학생의 사회적인 자기평가가 더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평가와 또래평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으며, 형제평가와 교사평가는 여학생이 더 높다. 특히 교사평가에 대한 남학생의 평균은 12.27, 여학생의 평균은 11.50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가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높으며, 이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주요한 사회적 타인의 평가인 사회적 자기평가 중에서 남녀 모두 부모에 의한 평가가 가장 높으리라 보고 있으며 그 다음은 형제평가, 교사평가 순이다.

자기평가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부모평가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고 또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며, 학업영역, 신체영역과 교사평가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3. 자기평가에 대한 학교변인의 효과

청소년의 생활 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며, 학교의 다양한 경험이나 학교에 대한 느낌 등과 같은 학교관련 변인이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학교 변인과 관련하여 세가지 독립변인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하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라는 교급에 의한 구분이며, 둘째는 고등학생 중에서 인문계와 실업계의 계열별 구분이며, 셋째는 성적에 의한 구분이다.

가. 자기평가에 대한 교급별 차이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자기평가에 대한 교급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5〉와 같다.

〈표 5〉 ‘자기평가’에 대한 교급별 차이

교 급 별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평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통계치
주관적 자기평가	13.28(2.11)	13.29(2.11)	F = .00
학업영역	12.46(3.06)	12.86(2.90)	F = 2.27
사회영역	14.73(2.70)	14.08(2.76)	F = 9.94 **
가치영역	13.90(2.78)	14.28(2.78)	F = 3.17
신체영역	11.78(3.21)	11.97(3.08)	F = .65
사회적 자기평가	13.62(1.90)	13.63(1.90)	F = .00
부모평가	15.66(3.31)	15.95(2.81)	F = 1.57
형제평가	14.00(2.99)	14.28(2.80)	F = 1.12
또래평가	12.50(2.69)	12.63(2.47)	F = .39
교사평가	12.08(2.91)	11.64(2.38)	F = 4.79 *

N=(중학교 : 351, 고등학교 : 359)

* : $p < .05$ ** : $P < .01$

주관적인 사회평가의 경우 중학생의 평균은 13.28이며 고등학생의 평균은 13.29로서 집단간 평가의 차이가 없다. 하위영역별로는 사회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등학생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사회영역에 대한 평가에서 중학생의 평균은 14.73, 고등학생의 평균은 14.08로서 중학생의 평가가 고등학생보다 더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중학생은 주관적인 자기평가 영역 중에서 사회영역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며, 고등학생은 가치영역에 대해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가장 낮게 평가하는 주관적인 평가영역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신체영역이다.

사회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중학생의 평균은 13.62, 고등학생의 평균은 13.63으로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마찬가지로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다. 하위영역별로는 부모평가, 형제평가, 또래평가에

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은 자기평가를 하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교사평가에 대한 중학생의 평균은 12.08, 고등학생의 평균은 11.64로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교사에게서 인정과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사회적인 자기평가 중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부모평가가 가장 높다. 이에 비해 가장 낮은 평가는 두 집단 모두 교사평가로서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교사평가는 중간점인 12.00에 못미치는 11.64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은 학교의 선생님에게서 인정이나 친절감, 지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교급에 의한 차이는 사회영역과 교사평가를 제외하곤 거의 없다. 사회영역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평가가 상당히 높은 데, 이것

은 고등학생이 입시 및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따르고, 이 때문에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할 여유가 부족한 까닭일 것이다. 또한 교사 평가에서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이는데 이 또한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인간적인 교류가 더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나. 자기평가에 대한 학교계열별 차이

고등학생의 경우에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의 구분에 따라 자기평가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고등학생에 한하여 계열별로 나누어 자기평가에 대한 F-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자기평가’에 대한 고등학교계열별 차이

학교계열	인문계	실업계	
자기평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통계치
주관적 자기평가	13.50(2.13)	12.57(1.89)	F=12.00 ***
학업영역	13.21(2.91)	11.68(2.54)	F=18.61 ***
사회영역	14.08(2.82)	14.06(2.57)	F= .007
가치영역	14.60(2.82)	13.16(2.31)	F=17.16 ***
신체영역	12.14(3.07)	11.41(3.06)	F=3.54 *
사회적 자기평가	13.88(1.85)	12.79(1.83)	F=19.70 ***
부모평가	16.40(2.62)	14.47(2.93)	F=32.10 ***
형제평가	14.60(2.69)	12.98(2.81)	F=21.13 ***
또래평가	12.83(2.49)	11.92(2.31)	F=8.74 **
교사평가	11.68(2.45)	11.48(2.12)	F= .42

N=(인문계 : 267, 실업계 : 92)

* : $p < .05$ ** : $P < .01$ *** : $P < .001$

주관적 자기평가에 대해 인문계 고등학생의 평균은 13.50, 실업계 고등학생의 평균은 12.57로 인문계 고등학생의 주관적인 자기평가가 더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학업, 사회, 가치, 신체영역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평가가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더 높다. 특히 학업영역과 가치영역의 평가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실업계 고등학생의 학업영역평가는 평균점인 12.00보다 낮은 11.41로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대학입학으로 상징되는 우리사회의 학력중시 풍토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느낄 수 밖에 없는 부정적인 자기평가의 결과일 것이다.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가치영역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지만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는 사회영역의 평가가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평가는 두 집단 모두 신체영역에 대한 평가이다.

사회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평균은 13.88, 실업계 고등학생의 평균은 12.79

로서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로 부터 인정과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모두 인문계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모든 영역에서 더 높지만, 특히 가족인 부모와 형제평가에 대해 인문계 학생의 평균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즉 실업계로 진학한 학생은 중요한 타인 중에서 특히 가족들이 자신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또래평가에서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평균점보다 조금 낮은 11.92의 평가를 하고 있어 또래간의 인정이나 지지 또한 높게 인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교사평가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평균은 11.68, 실업계 고등학생의 평균은 11.48로서 모두 중간점보다 낮은 것을 볼 때, 교사평가가 낮은 것은 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관련된 학교변인으로서 학교의 계열은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실업계 학생보다 인문계 학생의 자기평가가 전반적으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다. 자기평가에 대한 성적별 차이

본 연구의 대상이 학생 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는 학교성적이다. 성적이 다른 변인보다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학생시기의 성적은 자존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요한 타인인 가족과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평가에 대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적을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별하여 자기평가에 대한 집단간 F-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 '자기평가'에 대한 성적별 차이

성 적	상	중	하	
자기평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통계치
주관적 자기평가	14.11(2.17)	13.36(2.04)	12.39(2.05)	$F=27.48***$
학업영역	14.50(2.72)	12.91(2.45)	10.55(3.02)	$F=94.96***$
사회영역	14.48(2.98)	14.58(2.58)	14.01(2.92)	$F=2.13$
가치영역	14.94(2.76)	14.11(2.77)	13.32(2.65)	$F=14.49***$
신체영역	12.41(3.20)	11.92(3.05)	11.31(3.24)	$F=5.19**$
사회적 자기평가	14.28(1.95)	13.65(1.76)	12.99(2.10)	$F=17.20***$
부모평가	16.46(2.92)	15.85(2.91)	15.13(3.42)	$F=7.92***$
형제평가	14.54(2.71)	14.13(2.78)	13.73(3.26)	$F=3.04*$
또래평가	13.10(2.55)	12.69(2.53)	11.81(2.58)	$F=11.64***$
교사평가	12.88(2.72)	11.79(2.49)	11.06(2.69)	$F=20.37***$

N=(상 : 157, 중 : 370, 하 : 176)

* : $p < .05$ ** : $P < .01$ *** : $P < .001$

우선 주관적인 자기평가를 살펴보면 성적이 ‘상’인 경우 평균은 14.11, ‘중’인 집단의 평균은 13.36, ‘하’인 집단의 평균은 12.39로서 성적이 높은 집단이 주관적인 자기평가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하위영역별로는 성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평가인 학업영역의 경우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성적이 ‘하’인 집단은 학업영역 평가의 평균이 10.55로서 중간점수인 12.00보다 크게 낮은 것을 볼 때, 성적이 낮은 경우 학업영역과 관련된 자기평가가 아주 부정적이다. 가치영역에 있어서도 성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평균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영역은 오히려 성적이 ‘중’인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상’, ‘하’집단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사회적인 자기평가를 보면 성적이 ‘상’인 집단의 평균은 14.28, ‘중’인 집단의 평균은 13.65, ‘하’집단의 평균은 12.99로서, 성적이 높은 집단이 사회적인 자기평가 또한 높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하위영역의 모든 영역에서 성적이 ‘상’인 경우에 다른 집단보다 평가가 높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교사평가에 있어 성적이 ‘상’인 집단 만 중간점인 12.00보다 높고 ‘중’, ‘하’ 집단은 11.79, 11.06으로 중간점보다 낮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에 따른 자기평가를 살펴본 결과, 사회영역을 제외한 자기평가의 전 영역에서 성적이 높은 집단이 성적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기평가가 높고 성적이 낮은 집단은 학업영역과 또래평가, 교사평가 모두 중간점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평균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학교 성적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기평가에 대한 가정변인의 효과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관련하여 가정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가정이 청소년에게 일차적이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기 때문이다. 즉, 부모와 형제 등에 의해 주어지는 가족간의 지지 정도가 자기평가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자기평가에 대한 독립변인으로서 가족변인을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형제순위에 따른 것이며, 둘째는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것이며, 셋째는 가족간의 대화정도이다.

1) 자기평가에 대한 형제순서별 차이

일반적으로 장남, 장녀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막내는 귀엽게 여기는 우리사회의 통념상 형제순서는 청소년의 생활에서 학업성취, 사회적 관계, 성격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서울대 교육연구소, 1981 : 551), 청소년의 자기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는 형제의 순서를 맏이, 중간, 막내, 독자로 나누고, 독자인 경우에는 사회적인 평가영역 중에서 형제평가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자기평가와 형제평가에서 제외시켰다. 형제순서에 따른 자기평가의 정도를 보면 다음의 <표8>과 같다.

주관적인 자기평가 정도는 맏이, 막내, 독자, 중간 순이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하위영역 중에서 학업영역에서는 독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맏이, 막내, 중간 순이며 이들 간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사회영역은 독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막내와 맏이로 비슷하며, 중간이 가장 낮다. 그러나 가치영역과 신체영역의 경우는 막내가 가

〈표 8〉

‘자기평가’에 대한 형제순위별 차이

형제순서	말이	막내	중간	독자	
자기평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통계치
주관적 자기평가	13.39(2.13)	13.37(2.21)	12.80(2.06)	13.33(1.79)	F=2.20
학업영역	13.01(2.73)	12.52(3.28)	12.09(2.82)	13.11(2.49)	F=3.10*
사회영역	14.41(2.78)	14.48(2.90)	13.87(2.45)	15.06(2.06)	F=2.07
가치영역	14.12(2.85)	14.21(2.78)	13.86(2.58)	13.70(2.92)	F= .65
신체영역	11.85(3.14)	12.21(3.06)	11.21(2.97)	11.40(2.89)	F=3.08*
사회적 자기평가	13.79(1.79)	13.59(2.02)	13.40(1.98)	— — — —	F=2.54
부모평가	16.01(2.75)	15.69(3.31)	15.64(3.12)	15.62(3.24)	F= .69
형제평가	14.21(2.76)	14.23(3.12)	13.75(2.65)	— — — —	F=1.77
또래평가	12.56(2.63)	12.67(2.58)	12.56(2.44)	11.50(2.46)	F=2.00
교사평가	12.16(2.50)	11.69(2.71)	11.53(2.63)	11.63(3.17)	F=2.16

N=(말이 : 252, 막내 : 275, 중간 : 110, 독자 : 34)

*: p<.05

장 높고, 그 다음은 말이다.

사회적인 자기평가 역시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마찬가지로 말이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막내, 그리고 중간 순이지만 이러한 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각 하위영역에서도 형제순서에 따른 집단간 자기평가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각 영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는데 부모평가의 경우 말이, 막내 순이며, 형제평가는 막내, 말이 순이고, 또래평가는 막내가 가장 높고 독자가 가장 낮으며, 그 평균이 중간점인 12.00보다 낮은 11.50으로 독자인 경우 친구들의 자신에 대한 인정이나 지지가 낮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평가에서는 말이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막내이다.

이상과 같이 형제순서와 자기평가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다만 말과 막내의 경우가 다른 형제에 비해 전반적으로 자기평가가 높은 경향이 있고 독자는 사회적인 자기평가

가 다른 형제 순서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 자기평가에 대한 경제수준별 차이

청소년들의 자기평가와 자기집안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수준을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간에 자기평가 정도를 살펴보았다.

주관적인 자기평가에서 경제수준이 ‘상’인 집단의 평균은 14.24, ‘중’인 집단의 평균은 13.16, ‘하’인 집단의 평균은 12.28로, 경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자기평가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또한 각 하위영역에서도 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자기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인 자기평가를 보면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동일하게 경제수준이 높다고 한 청소년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각 하위영역에서도 경제적

〈표 9〉 ‘자기평가’에 대한 경제수준별 차이

경제수준	상	중	하	
자기평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통계치
주관적 자기평가	14.24(2.19)	13.16(2.04)	12.28(2.28)	F=18.47 ***
학업영역	13.81(2.79)	12.51(2.95)	11.65(3.07)	F=13.20 ***
사회영역	15.10(2.94)	14.29(2.64)	13.57(3.18)	F=6.62 * *
가치영역	14.97(2.90)	13.97(2.67)	13.20(3.18)	F=9.19 ***
신체영역	12.90(3.13)	11.73(3.07)	10.77(3.31)	F=10.60 ***
사회적 자기평가	14.46(1.79)	13.49(1.88)	12.83(2.23)	F=16.05 ***
부모평가	16.91(2.52)	15.62(3.05)	14.93(3.83)	F=11.31 ***
형제평가	15.02(2.76)	14.29(2.64)	13.57(3.18)	F=9.06 ***
또래평가	13.42(2.59)	12.42(2.49)	11.85(3.02)	F=9.84 ***
교사평가	12.62(2.83)	11.77(2.58)	10.78(2.57)	F=9.30 ***

N=(상 : 126, 중 : 534, 하 : 49)

** : P<.01 *** : P<.001

로 잘 산다고 한 경우에 부모평가, 형제평가, 또래평가, 교사평가가 모두 높으며, 이러한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집안의 경제적 환경은 관련이 깊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 자신에 대한 자기평가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기평가에 대한 가족의 대화정도에 따른 차이

가족간의 대화는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시켜 청소년에 대한 중요한 지지원의 역할을 하며,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신을 느끼게 함으로써 안정되고 보호받는 느낌을 갖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간의 대화 정도를 본인이 주관적으로 평정하게 하여 대화를 많이 하는 경우와 거의하지 않는 경우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족간의 대화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자기평가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10〉과 같다.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대하여 가족간에 대화를 많이 하는 집단의 평균은 13.63,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은 12.65로서 큰 차이를 보이며 (F=32.37),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각 하위영역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사회영역에 대한 평가에 있어 대화를 많이 하는 청소년 집단의 평균은 14.78, 거의 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은 13.63으로 하위영역 중 가장 큰 차이(F=28.30)를 보인다.

사회적인 자기평가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갖는 평가가 더 높으며, 두 집단간의 차이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 특히 가족대화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평가영역인 부모평가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의 평균은 16.39이며, 그렇지 않는 청소년의 평균은 14.68로 큰 차이(F=52.18)를 보였다.

이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의 자기평가에 가족간

〈표 10〉 '자기평가'에 대한 가족의 대화정도에 따른 차이

대화정도	많이하는편	거의하지않는편	
자기평가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통계치
주관적 자기평가	13.63(2.11)	12.65(2.05)	F=32.37 ***
학업영역	13.01(2.91)	12.05(3.04)	F=16.61 ***
사회영역	14.78(2.69)	13.63(2.72)	F=28.30 ***
가치영역	14.43(2.76)	13.45(2.71)	F=19.99 ***
신체영역	12.17(3.10)	11.33(3.15)	F=11.73 ***
사회적 자기평가	14.02(1.85)	12.85(1.84)	F=56.21 ***
부모평가	16.39(2.70)	14.68(3.41)	F=52.18 ***
형제평가	14.59(2.76)	13.22(2.94)	F=35.15 ***
또래평가	12.91(2.50)	11.89(2.55)	F=25.36 ***
교사평가	12.15(2.71)	11.25(2.48)	F=18.10 ***

N=(많이 : 438, 거의 : 226)

*** : P<.001

의 대화정도는 관련이 있으며 가족간의 대화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평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간의 대화가 청소년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기반으로 작용하여 자기 존재에 대한 평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V. 결 론

청소년기의 자기평가를 주관적인 자기평가와 사회적인 자기평가로 나누어 각 평가영역 간의 상관관계 및 성별, 학교변인, 가정환경변인별로 자기평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평가인 '가치영역평가'는 '사회영역, 학업영역, 부모평가, 또래평가'와 .40 이상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회적 자기평가 중 '또래평가'는 주관적인 자기평가 중 '사회영역, 가치영역,

신체영역'평가와 .50이상의 정적상관을 보여 청소년기의 중요한 타인으로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타인 중에 다른 인물에 비해 또래집단의 평가와 관련이 가장 크다고 나타난 이 결과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또래집단이라는 기존의 관련연구(Lloyd, 1985; Brown, Ericher, and Pertrie, 1986; Ginsberg, Gottmann and Parker, 1986; Parker and Asher, 1987; 윤진, 1984; 백경임·성동인, 1993; 이명숙, 1994)들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중, 고등학생기는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이 완전히 형성되는 시기인 청소년 후기 이전의 시기로서 청소년 전기와 중기에 속하며, 이 시기엔 또래집단이 지지적 기능을 제공하므로써 또래집단에서의 지향과 동조가 높기 때문에 또래에 수용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시기이

다(윤진, 1993). 즉,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부모와 보내는 시간보다 또래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친구들에 대해 동조적이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능력을 키우고, 동시에 심리적 지지를 받는다(Lloyd, 1985) 시기이다.

이렇게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집단으로서 친구의 영향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른들은 청소년의 또래집단을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모들은 청소년 또래집단을 경쟁대상이나 비행의 온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교사들도 청소년의 또래집단 형성이나 그 활동에 교육적 의미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다(이희연, 1994). 그러나 성인들은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인으로서 또래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청소년기의 다양한 또래활동을 지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문화를 형성하도록 구체적인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에 대한 성별 차이를 보면 부모가 청소년 자신에게 인정과 지지를 보이는지를 질문한 부모평가영역을 제외한 전반적인 다른 영역의 자기평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신체평가와 교사평가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을 보면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와 관련하여 성별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에 대한 학교변인과 관련한 결과는 i) 자기평가의 교급(중학생, 고등학생)에 의한 차이는 사회영역만 제외하고는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 사회영역의 경우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였다. ii) 자기평가에 대한 고등학교의 계열에 따른 차이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사회영역과 사회적인 자기평가의 교사평가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인문계 고

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 iii)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대해 학교성적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본 결과는 주관적인 자기평가의 사회영역 평가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성적이 높은 집단이 자기평가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성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업영역과 교사평가에서는 성적이 높은 집단의 평가가 성적이 낮은 집단의 평가와 큰 차이를 보여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성적의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변인과 관련하여 교급별 차이는 별로 없지만 학교성적과 고등학생의 경우에 학교의 계열에 따른 자기평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대학입시위주의 학력주의”로 대변되는 학교문화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삶의 다양성을 추구해야하는 청소년시기에 “대학입학”이라는 일원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사회에서 학교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많은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안고서 청소년기를 보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존재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제가 필요하다. 즉, “학력중심”의 가치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여전히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양한 학업 외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학교 성적외의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자기평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에 대한 가정환경변인과 관련한 결과는 i) 형제순위에 의한 자기평가는 대부분 맏이와 막내의 경우가 높았고, 중간인 경우는 대부분 낮은 평가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ii) 자기평가에 대한 가정의 경제수준별 차이는 상, 중,

하 세 집단에 대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기평가 또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iii)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대해 가족간의 대화 정도에 따른 차이는 가족간의 대화빈도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기평가가 높았으며, 특히 가족간의 대화 정도와 관련이 있는 부모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기의 자기평가에 대한 가정변인으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의 경제적 수준과 가족간의 대화정도이다. 이렇게 자기평가에 가정의 경제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한 이유는 아마 우리사회가 과거에 비해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기 보다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므로써, 가정의 경제수준을 청소년 자신의 능력이나 평가와 동일시하여 경제수준이 낮을 경우 자신에 대하여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가족간의 대화 정도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 내의 대화빈도가 높을수록 자신이 가족에게서 지지받고 인정받으며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지며, 이것을 기초로 자기를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범위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여 청소년의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보다는 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애정과 관심을 보

여주어야 한다(유영주, 1994:10). 즉, 자녀와 친구처럼 지내면서 동료적 역할을 하고 자녀를 한개인으로서 이해하여 신뢰와 애정어린 대화를 유지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지 및 인정을 제공하여 이를 기초로 자기평가가 고양되도록 도와야 한다.

청소년의 자기평가와 관련된변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논의들이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교변인(교급별, 계열별, 학교성적별), 가족변인(형제순서, 경제수준, 대화정도)으로 단순히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간 자기평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집단간 차이의 원인과 그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대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기평가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삶속에서 찾아내는 질적인 접근을 통해 구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또한 수행될 때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종서 외. 1983.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연구논총 82~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영남 외. 1993. 「고교생의 자아상에 관한 연구」 대구YMCA 청소년문제연구소.
- 백경임·서동인. 199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4호, 45~63.
- 서울대학교육연구소. 1981. 「교육학용어사전」, 배영사.
- 양인숙. 1991. “시험불안과 사회적 지지 요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1994. “한국가족의 역할”, 「한국청소년

- 연구」, 제5권 제3호, 5~12.
- 윤 진. 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전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2(1), 94~113.
- _____. 1993. “청소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의 방향”, 「청소년학연구」, 1.
- 이명숙. 1994. 「기질 및 또래지지가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단기 종단적패널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연. 1994. “청소년 또래문화 조사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5권 제2호, 155~173.
- 최순남. 199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한신대학교 출판부.
- Brown, B., Eicher, S., & Petrie, S. 1980. “The Importance of Peer Group(“Crowd”) Affili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9, 73~96.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 Cooley, C. H. 1964.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 Schoker.
- Eri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Ginsberg, D., Gottman, J., & Parker, J. 1986. “The Importance of Friendship”, in J. Gottman & J. Parker(eds.), *Conversations of Friend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plan, B. H., Cassel, J. C., & Gore, S. 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5), 47~58.
- Harter, S. 1990. “Causes, Correlates, and the Funtc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 A Life-Span Perspective”, in R. J. Sternberg & J. Kolligue(eds.), *Compedence Consied*, N.H.; Yale University Press.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 Lloyd, M. A. 1985. *Adolescence*, New York.; Harper & Low Publishers.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tin*, 102(3), 357~389.
- Purkey, W. W. 1971. *Self-Concept and School Achiev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orgers, C. R. 1981. *Adolesence and Youth*(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Rosenb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neticut : Wesleyan University Press.
- Youngs, B. B. 1994. 이일남 (역).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성출판사.